

전자출원 방법 이제 온라인 통해 무료로 학습!

전 자출원 방법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학습된다.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세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한 전자출원을 시도한 이래, 현재는 90%에 육박하는 높은 전자출원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출원이 대부분 특허법률사무소 등 변리업계를 통한 것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서면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자출원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었다.

특허청은 일반인 대상 전자출원 교육수요를 위해 오프라인 형태로 교육을 수행해왔으나, 금년 12월부터는 수요대상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형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 것이다.

콘텐츠는 크게 산업재산권 분야, PCT 국제출원분야, 마드리드 국제상표분야 등 3개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를 통해 서비스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상표 1호는

최초의 상표등록 이후 금년 9월말까지 73만 여건의 상표 등록

오 리나라 최초의 등록상표는 1949년 11월 28일 등록된 '천일'  산업의 상표이다.

당시 천일산업은 고무신, 운동화, 농구화, 고무장화 등 주로 스포츠 용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위 등록상표는 상표권 존속기간만료로 인하여 1959. 11. 28. 자로 소멸됨

1호상표에 이어 1952년 8월 31일 2호상

표가 등록되었는데, 10호까지의 등록현황을 보면, 2호 내지 6호상표는 천일산업에서 1호상표와 같은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천일" 등 5건이고, 7호 내지 10호까지는 경성방직 주식회사에서 "목면직물"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불노초" 등 4건이다.

올해는 해방이후 우리나라에 상표법이 제정·공포(1949.11.28 법률제71호)되고, 최초의 1호상표가 등록된 지 56주년이 되는 해로서 2005년 9월말 현재 734,295건의 상표가 등록되었다.

R&D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온라인 무료교육 서비스 개시!

금년도 12월부터 R&D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온라인 무료교육 서비스가 개시된다

특허청은 국내 R&D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정보 조사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중복투자나 시간·인력낭비 등 피해사례가 많다고 보고 국내 연구개발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활용확산을 위해 온라인 무료 교육콘텐츠를 보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특허정보는 논문에 비해 그 양이 방대하고 법률문서로서 그 내

용구성이 체계적이어서 잘만 활용하면 기술개발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내용의 품질도 결코 논문 등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료교육 콘텐츠는 특허정보의 가치, 특허정보의 활용, 특허정보의 검색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플래쉬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어 흥미롭게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는 한국발명진흥회 사이버국제 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변리사시험 합격자 수습처 구하기 쉬워진다

특허청, 사이버 취업 정보 센터 구축

특허청은 금년부터 변리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을 돕기 위해 특허법인 등의 채용정보를 변리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전문 자격사시험의 합격자가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들에게 충분한 취업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정보부족에 의한 미취업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현재 최소합격인원 200명에 대한 수습처는 확보되었다.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희

망 수습처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면 각 수습처 채용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이들의 자료가 송부되며, 특허청에서는 각 수습처에 본인 동의 하에 성적 등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허청 담당자에 따르면 금년도 진행결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변리사 이외에 특허사무소 직원 채용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 한다.

한편, 매년 200명 이상이 선발되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변리사법에 따라 1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다.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 203명 발표

합격점 57.91 ,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단 1명 분

특허청은 지난 12월 16일 제42회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 203명과 2006년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년도 시험의 응시자는 2,017명이며 합격점수는 4과목 평균 57.91로 전년도에 비해 약 5점 정도 상승하였으며, 약 42%인 86명이 금년도 1,2차 시험에 동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합격자 203명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 전공자가 단 1명으로 변리사시험이 이공계 전공자의 대표적 시험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전기, 기계, 생명공학 등

에서 고른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영예의 수석은 67.24점을 얻은 백가람(24세)씨가 차지하였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백경수(23세), 최고령 합격자는 박종경(44세)씨가 차지하였다.

또한 여성합격자는 61명으로 2002년 이후 전체합격자의 30%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여성이 변리사를 전문직업으로 꾸준히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최종합격자는 2006년 2월부터 시작되는 실무수습과정을 이수하고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이들의 실무수습을 돕기 위해 기업체 및 특허법인 등의 채용정보를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06년도 제43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1월 4일부터 13일까지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공 특허청